푸른 물살 가르며 연화장 세계로…

저 절로 가는 길

⑮ 연화사 가는 길

그 섬에 가고 싶다. 가봤자 아무런 연고지도 없으면서 막연히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사람이 더러 있다. 저녁 무렵 창가에 서서 빌딩 너머로 기우는 해를 오래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혹여 섬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에 잠겨있지나 않은지 의심해봐야 한다.

단지 그곳에 섬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여름 나는 미륵도와 연화도로 떠났다. 그런데 혼자 가야 어울림직한 여행에 사람들을 선동한 건 어떤 연유였을까? 나는 도반들을 데리고 심야버스로 통영을 향해 내달렸다. 그 섬에 가려면 바다를 건너야 하고, 바다를 건너려면 배를 타야 하는 먼 여정이었다.

첫 번째 섬인 미륵도, 그 섬에서 어쩐지 나는 섬을 실감할 수 없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대신 아치트로스 공법의 통영대교를 건넜기 때문일까. 용화사에서 새벽예불을 마친 나는 케이블카라도 타고 미륵산에 오르려던 생각을 접었다. 배 시간이 촉박했다.

두 번째 섬인 연화도로 가려고 통영 여객선터미널에서 이른 11시에 떠나는 고속카훼리호를 탔다. 사람과 차가 드나드는 배의 철문이 둔중하게 닫히는 순간 수로를 건너는 다리 역할도 하는 중세 유럽의 성문이 떠올랐다. 배가 앞으로 나아가자 바다가 단번에 양쪽으로 쪼개져서 흩날린다. 한산도와 여수의 앞글자를 각각 하나씩 떼 내어 이름 붙인 한려해상국립공원이다. 나와 도반은 먼 바다를 보고자 3층 갑판 위로 올라갔으나 얼굴을 쳐들기도 어렵게 바람이 셌다. 선실이 있는 2층은 욕지도와 연화도 가는 손님들로 북적댔다. 우리 중 몇 명은 다시 3층으로 올라갔다. 우리는 하는 수 없이 갑판과 선실에 따로 흩어져야 했다. 그렇지만 어디 있든 쪽빛 바다가 넘실대니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느낌에 웃음이 터져 나왔다.

섬에 가고자 하는 마음에는 인류의 오랜 소망이 담겨 있을지 모른다. 미국의 희곡작가 에드워드 올비의 '바다 풍경'은 인류의 시원이 바다라는 주장을 밑바탕에 깔고 이야기를 시작한다. 바닷가 휴양지에 바다도마뱀이 올라온다. 주인공은 도마뱀에게서 자신의 과거 모습을 본다. 주인공의 자각은 바다가 어머니의 자궁 속 양수와 같다는 공간적 동시성으로 이어진다. 어머니는 바다이다.

오늘의 우리는 어떠한가. 늘 결핍에 시달리기에 늘 어머니가 필요하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의 결핍은, 법정 스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모자라서가 아니라 만족을 모르는 데서 생겼기 때문이다. 바다를 보면 어머니가 가까이 있다는 느낌에 마음이 편안해진다. 섬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건 그 어머니의 자궁을 찾아 깊숙이 들어가고 싶어서이다. 그래선지 배로 한 시간 걸리는 연화도까지의 24km가 다소 먼 느낌이었다.

연화도 선착장에는 우리 외에 몇 사람만 내렸을 뿐이었다. 아무래도 볼거리가 많기로 소문난 욕지도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 탓이었다. 몇 척의 통통배와 가두리 양식장임을 표시하는 부표, 단층 슬라브 건물에 들어선 식당과 구멍가게, 창고로 쓰이는 컨테이너박스 등 작은 섬에서 흔히 보는 풍경이 우리 눈에 보였다. 부두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한 노인과 산비탈에 우두커니 서 있는 흑염소 몇 마리 때문에 더욱 고요해 보이는 섬이었다. 여의도보다 넓은 섬이면서 200명만 산다니 그럴 만도 하다.

선착장 앞 안내판이 가리키는 대로 왁자지껄 도반들과 함께 마을을 가로질러 육각정 앞에 이르니 산길이 열렸다.

앞이 툭 터진 오르막길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니 두부 모판 같은 양식장과 ㄷ자 모양의 선착장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우리나라 섬 어디서도 있기에 마치 제삼자 같아 보이는 풍경이었다.

그러나 연화도(蓮花島), 연꽃섬이란 이름이 공연히 생긴 건 아니었다. 선착장에서 출발해 불과 30분 만에 도착한 연화봉 212.2m 정상의 거대한 아미타불로부터 연화도가 지닌 불교적 키워드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발아래로 해안절벽에 세워진 보덕암이 내려다보이고 그 주변에 해수관음상과 두 기의 석불, 오층석탑이 가지런히 배치돼 있다. 보덕암은 2004년, 산 너머 연화사는 1998년에 지었으니 그 유래가 짧다. 누군가 섬 전체를 불국토로 조성한 흔적이 역력하다.

모두 쌍계사 조실인 고산 스님의 원력이다. 스님이 이 작은 섬에 사찰과 암자를 들이고 불상과 탑을 세운 까닭은 무엇일까?

조선조 연산군은 폭군으로 악명이 높지만 불교 탄압도 그에 못지않았다. 삼각산에서 수도하던 한 사내가 세 비구니와 함께 연화도로 도망쳐온 건 그때였다. 사내가 스님인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다. 세 비구니와 함께했고 섬사람들이 연화도인이라 불렀다고 하니 사내는 아무튼 섬에서도 구도자적 태도를 견지했던 모양이다. 도망자 연화도인은 이 섬에서 남은 생을 보냈다가 어느 날 입적했다. 세 명의 비구니와 섬사람들은 도인의 유언을 기려 시신을 수장했는데 그 자리에서 놀랍게도 연꽃이 피어올랐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연화도인이 입적한 지 70여 년 뒤 사명대사가 연화도에 찾아든다. 사명대사의 여동생인 임채운, 사명대사가 출가하기 전 약혼녀였던 황현옥, 사명대사를 짝사랑했던 심설정도 따라왔다. 섬사람들은 이들을 연화도인의 후신으로 믿었다.

이 모두가 구전이므로 사실보다는 설화에 가깝다. 그런데도 1974년 발간한 전남 순천의 승주향토지에 연화도인과 사명대사를 비롯한 그 밖의 사람들 이야기가 실명으로 기록돼 있다니 이거야말로 난데없다. 순천이라면 통영 연화도하고는 한참 떨어진 거리 아닌가. 사명대사의 세 여인이 임진왜란을 예측하고 이순신 장군을 만나 거북선 건조법, 해상지리법, 천풍기상법을 전수했다는 이야기를 뭐라 이해해야 할지도 난감하다.

그렇지만 이처럼 믿기 어려운 기록에도 불구하고 불교 탄압의 역사가 이 먼 남쪽 섬에도 깃들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연화도만이 아니다. 욕지도, 두미도와 세존도, 미륵도…… 통영 앞바다의 여러 섬에 농후한 불교적 색채는 새 삶을 개척하려 섬에 온 유민들이 뭍에서 이룰 수 없었던 불국토, 그 꿈의 조각들 아닐까.

연화봉 정상에서 만나는 비경은 뭐니 뭐니 해도 용머리 바위이다. 아니나 다를까, 도반들이 눈길이 모두 거기에 쏠려 있다. 열도처럼 늘어선 섬들이 용의 머리와 등뼈처럼 꿈틀대면서 바다로 나아가는 기세이다. 용이 바다에 입수하는 자세이므로 우리가 선 곳은 용의 등어리에 해당한다고 상상해선지 얼굴들이 하나같이 즐거워 보였다.

용머리 비경은 내리막길에서 잠시 모습을 감췄다가 보덕암에서 다시 등장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때부터 어쩐지 내 눈엔 용머리 바위가 올비의 도마뱀처럼 보였다. 꼬리를 물에 담근 채 바다 도마뱀이 막 뭍으로 올라오는 자세였다. 파충류 특유의 서늘한 온도가 내게로 다가드는 느낌이더니 그 갈라진 혓바닥이 내 귀를 간지럽혔다. 도마뱀이 내게 무슨 말인가 전했지만 안타깝게도 내 귀는 도마뱀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 순간 위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났다.

보덕암에서 되돌아 나와 두 갈래 길에서 도반들과 합류했다. 연화사로 가는 길과 벼랑길을 끼고 용머리 쪽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주저 없이 저 절로 갔다. 연화도에 유람 온 사람들은 대개 연화봉에 올라 용머리 앞에 있는 출렁다리를 건너서는 동두마을까지 다녀오는 게 순서다.

섬의 크기에 비해 그리 작지 않은 절이었다. 연화사를 지은 고산스님의 꿈이 컸다는 방증이다. 본래 섬사람들이 다 매달려도 이루지 못할 크기의 불사였는지 연화도는 지금도 불사를 진행 중이다. 보덕암에 와서 철야정진하는 외부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소식이니 그나마 다행이랄 수 있었다.

연화도 사람들은 가난한 편이다. 몇 년 전 연화도에서 하루 묵었던 나는 그걸 알고 있다.

"어족이 고갈돼 지금은 고기잡이배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작년이 저 세상 같다니까요."

어느 밤중, 연화도의 포장마차에서 내가 들은 탄식이었다.

종교는 때때로 현실의 크기와 반비례한다. 삶이 힘들수록 기대와 희망은 부풀어 오르기 마련이다. 연화도에 와서 불국토를 꿈꾸다 가는 사람이 많을수록 섬은 풍요로워질 것이니, 고산스님의 불사를 꼭 나쁘게만 평가할 일도 아니다.

연화도는 오후 5시가 막배이다. 그러나 서울까지 가는 시간을 감안하면 최소한 오후 3시 30분에 출발하는 배를 타야 한다. 연화도에 도착해서 그때까지의 유람시간은 3시간 30분.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이 섬에 와서 얻어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욕지도를 다녀온 배가 기적소리를 내며 다가온다. 착한 양처럼 우리는 배표를 끊고 선착장에 줄을 서고 있었다. 배에 오르기 전 나는 잠시 보덕암에서 들었던 도마뱀의 말소리를 떠올렸다. 터무니없는 착각이라 해도 그 말소리에 내가 벗어나고자 하는 결핍의 비밀이 있으리라고 나는 믿는다.



고원영(조계종 산악회 수석부회장)



통영 여객선터미널서 고속카훼리호가 남긴 흰 포말을 보면 우리의 삶도 이처럼 덧없음이 느껴진다.



연화사 아미타불 모습.

통영 앞바다 불국토 명칭
보덕암과 연화사 등 존재
고단한 삶의 희망 상징



고산 스님이 창건한 연화사.

• 걷는길 : 육각정 – 연화봉 정상 – 보덕암 – 연화사 – 선착장 • 거리와 시간 : 3km 정도, 2시간 예상